국보 우에스기혼 라쿠츄라쿠가이즈 가노에이토쿠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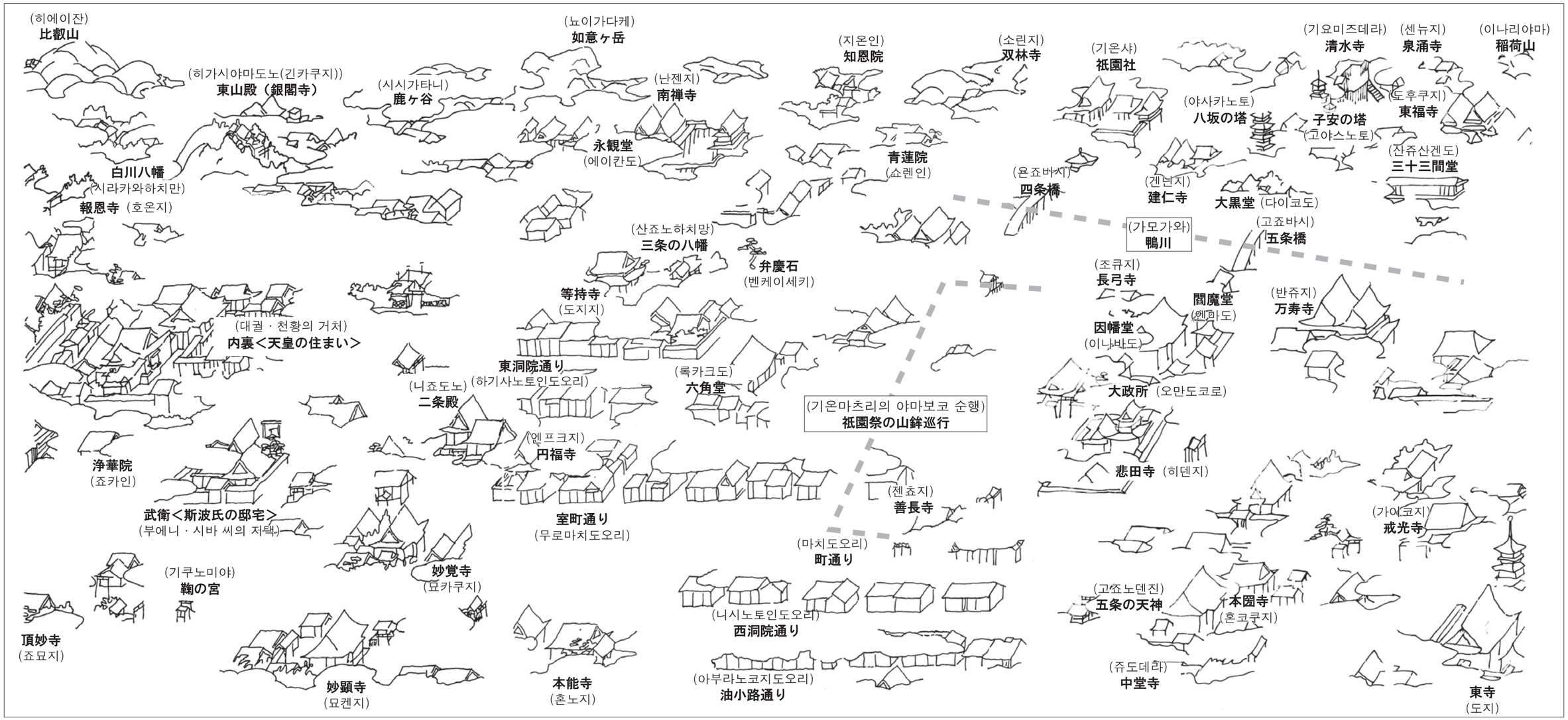
덴쇼 2년(1574)에 오다노부나가가 우에스기겐신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온 병풍으로, 작자는 가노에이토쿠. 화면에는 무로마치 시대 말기의 교토(수도) 시가지(라쿠츄)와 교외(라쿠가이)를 높은 시점에서 그리고 있다.

전체에 금을 알맞게 사용하여 선사품에 알맞는 호화로운 모양이다. 금빛 구름 사이에서 450년 전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다.

건물이나 거리 등 232 개 주제가 화면에 그려지고, 그려진 인물은 약 2,700 명. 당시 교토의 인구는 10만 명쯤이라고 불리웠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예술적, 미술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고, 민속학적 견지로부터 보아도 귀중한 자료로, 1995년 6월 15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오른쪽



여섯 번째

더 눈에 띄는 노송나무 껍질로 이은, 지붕이 아름다운 건물은 천황이 거주하는 대궐로, 현재의 교토 궁월과 거의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의 계절은 정월. 아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 그것을 즐기는 구게들, 열린 문으로 구경하는 서민의 모습이 보인다.

다섯 번째

네 번째

기온마츠리의 야마보코 순행. 금빛 구름 사이에서 높게 치솟은 씩씩한 미늘창이 그려진다. 기온마츠리는 역병을 누르기 위해 신불(神佛)에게 기도를 올린 것이 기원이라 한다. 오닌의 난(1467~1477)에서 일시 두절되었지만 그후 재개되고 지금도 450년 전과 다름 없는 교토의 여름 풍물시(風物詩)로 되어 있다.

세 번째

두 번째

가모가와의 여름 풍경. 강 속에는 수영을 즐기는 사람,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 강에 걸린 고죠 다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다리 그쪽에는 기요미즈사나 산쥬산겐도 등 지금도 교토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건물이 보인다.

첫 번째

2013년도 문화청 지역과 서로 작용한 미술관 · 역사 박물관 활동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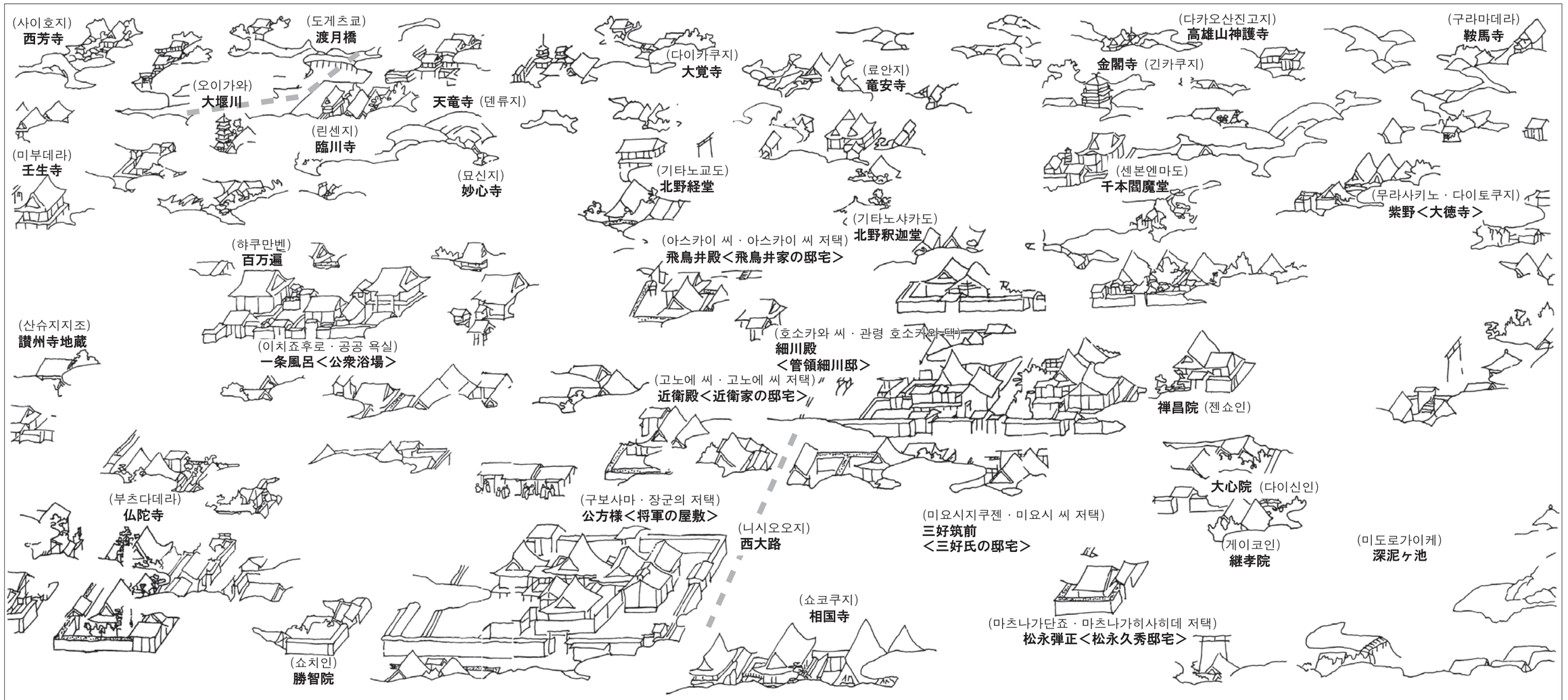
이 그림은 예로부터 가노에이토쿠가 그린 것으로 전해져 있었는데, 그려진 교토 거리의 경관, 또는 건물의 존재 기간과 에이토쿠 생년과의 관계로부터 보아 에이토쿠가 그린 것을 의문시하는 주장을 내서우는 자도 많아 여러모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 그림 오른쪽 여섯 번째와 왼쪽 첫 번째에 찍은 도장은 가노에노가 저서한 <혼쵸가인>에 의해 에이토쿠의 것으로 신용되고, 기법 등으로부터 보아 확실히 가노에이토쿠의 작품으로, 국보로 지정받게 되었다.

가노에이토쿠(1543~1590)는 모모야마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젊은 나이에 그 재능을 뚜렷이 나타냈다. 젊은 때는 미니아튀르, 장년기에는 호방한 작풍에 숙련되었다 한다.

에이토쿠는 오다노부나가와 도요토미히데요시 등에게 중용되어 동문(同門)을 인솔하여 아즈치죠와 쥬라쿠다이 등 천하를 얻은 사람을 상징하는 건물 내부의 회화 제작을 담당했는데, 건물과 동시에 분실된 작품도 많다. 우에스기혼 라쿠츄라쿠가이즈 병풍은 현존한 귀중한 작품 사례 중 하나다.

왼쪽



여섯 번째

오이가와에 가설된 도게츠쿄는 옛날에도 지금도 단풍의 명소다. 주변에는 단풍이 든 나무와 단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 중간쯤에는 벼를 거두어 들이는 장면, 벌레를 잡는 바구니를 든 일행도 그려져 있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아시카가 장군의 저택(구보사마)과 장군 보좌역의 저택(호소가와 씨)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훌륭한 건물이 일기를 끈다. 축국을 가업으로 한 아스카이 씨의 저택도 보인다.

주변에는 새해 맞이 준비를 다그치는 서민의 생활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상부에는 벚꽃이 만개한 구라마데라, 두 번째 상부에는 눈에 파묻힌 긴카쿠지가 그려져 있는데, 교외의 조용한 모습이다. 두 번째의 중간쯤에는 매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행렬, 하부에는 새해 놀음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번화한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첫 번째